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본관)의 건축적 특징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feffer Hall at Ewha Womans University



서 명 수 /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Seo, Myungsoo / Assistant Profess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seoms@hknu.ac.kr

1. 서론

개화기 이후 서양의 영향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어서 19세기 말부터 조선의 전통 건축에서 보이지 않았던 양식(Western style) 건축들이 조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에 지어지는 근대건축은 점점 일본에 의해 혹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일부이긴 하지만 일본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축들 역시 들어서게 된다. 이는 조선에 그들의 종교적 목표, 즉 선교를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서양식 건축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에 나타난 여러 근대건축 중에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근대 학교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근대학교 건축 중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이프 홀(Pfeffer)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일제강점기 미국 선교사의 활동

영미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이 함께 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기독교 포교를 위한 영미 선교사의 직접적인 활동은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인들의 반감을 유발 할 수 있었다. 개화기를 지나 일제강점기 때는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적었다. 비록, 일제는 1943-45년 패망 전에 기독교를 크게

탄압을 했으나 이는 조선 전반에 나타난 탄압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할 이유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여전히 조선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교였다. 둘째는, 당시 근대화에 뒤쳐진 조선의 상황에서 조선의 근대화는 영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였다. 영미 기독교인들이 조선을 근대화 하는 것이 자신들이 조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며 특히 의료와 교육은 중요한 두 축이었다.

이처럼 영미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에서 의료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20세기 초 조선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선교활동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미 기독교인들이 포교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과 의료는 조선인들 특히,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전통을 가진 양반들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고 영미 기독교인 자신들의 목표(기독교 선교)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의 완충(buffer)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지은 학교 건축은 조선인들에게 큰 반발 없이 새겨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²⁾와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육사나 건축사

- 1) 오히려 조선의 기독교계 인물들 중에 친일 부역을 한 사람도 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 등 일제에 반하는 사회 활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적었던 점 등이 일제가 기독교를 크게 탄압을 할 이유를 찾지 못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연세대학교는 1885년 호러스 뉴턴 앨런(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세운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제중원'과 1915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5)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을 토대로 시작이 되었다.

측면에서 20세기 선교 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던 대표적인 근대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가장 초기 건물인 파이프 홀(Pfeffer Hall)에 대해서 그 역사 및 문화적 상황과 건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원 및 발달

이화여자대학의 시작은 미국 감리교에서 파견된 메리 플레처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 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스크랜턴 부인은 1884년 한국 여성의 개화와 근대적 교육을 위해 미국 감리교의 해외 여성 선교회인 W.F.M.S.(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서울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스크랜턴 부인은 1885년에 교육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웠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 현재 덕수궁 옆 정동지역에 약 6,100평 규모의 대지를 구입하여 1886년 2월부터 교사신축에 들어갔다.³⁾ 초기의 교육은 1886년 정동에 한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후 1887년 고종이 이들에게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이름을 외아문⁴⁾을 통해 하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립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⁵⁾

이화여자대학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인 4년제 과정은 1910년 개설되었다. 이후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화여대의 정동캠퍼스는 1915년 심슨홀, 1921년 후퍼기념유치원, 1923년 프라이홀, 프램톤 하우스 등이 지어 졌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학생들을 정동캠퍼스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1924년 7월 지금 신촌지역에 새 캠퍼스 계획을 위한 조성을 하였으며, 이듬해인 1925년 이화여자전문대학교로 정해졌다. 193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본격적으로 정동에서 신촌으로 교사를 옮겼다. 초기는 파이프 홀과 기숙사, 음악관, 유치원, 체육관 이렇게 다섯 건물이 있었다.

현재의 본관인 파이프 홀과 음악당(현 중강당)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건축가이자 선교사인 보리스가 운영하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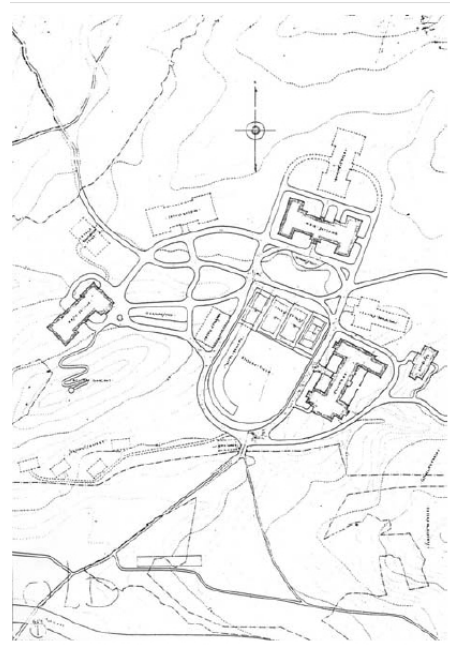


그림 1. 1953년 이화여자대학 배치도
 [출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5), 40.]

리스 건축사무소에 의해 1934년 완공되었다. 또한, 과학관은 1950년대 한국인 건축가 유상하에 의해, 대강당은 1956년 건축가 강윤에 의해 완공되었다. 이로서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50년대 이화여자대학의 배치에 대한 기본 윤곽이 완성되었다.

3.1 파이프 홀 건축가: 윌리엄 메릴 보리스(William Merrell Vories(1881-1964)와 강윤(1899-1975)

개항이후 개신교의 여러 선교사들이 선교사업을 위해 조선에 들어왔다.⁶⁾ 특히, 윌리엄 메릴 보리스는 한반도에 근대식 서양건축을 도입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보리스는 1880년 미국 캔사스(Kansas)의 리븐워스(Leavenworth)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해외 선교일에 관심이 많았다. 보리스는 1905년 선교사업의 뜻을 품고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처음 선교활동으로 1905년 2월 2일 시가현(滋賀縣) 오미 하치만(近江八幡市)에 도착했다.⁷⁾ 처음에는 오미 미션(Omi Mission, 1934년부터 Omi Brothers로 이름을 바꿈)을 세우고 선교 활동을

3)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p.29.
 4) 외아문은 1880년 고종 때 설치된 관청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임오군란으로 1882년 폐지되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외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내아문)으로 분리되었다.
 5)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p.29.

6) 개신교는 1885년 4월 북 감리파의 H. G. Appenzeller, 북장로파의 H. Underwood, 북장로파 여성교본부 M. F. Scanton부인과 그의 아들 W. B. Scanton 등이 아라비아 선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
 7) 김정동, “강윤과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 p.199.

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처음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자 영어선생 같은 직업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⁸⁾



그림 2. 건축가 William Merrell Vories 초상화
[출처: 보리스 아카데미]

보리스는 콜로라도 대학 철학과 출신으로 정규건축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는 주로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 1908년 보리스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 사무소는 1944년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 106점의 작품을 한반도 조선에 남겼다. 주로 선교와 관련된 교회, 선교사주택, 학교건축들이었다.⁹⁾ 그가 한국에 설계한 대표적인 건물로는 이화여전(현재의 이화여대), 종로의 태화기독교사회관, 부산대도서관, 한국신학대학 등이 있다.¹⁰⁾ 그 중에 이화여자대학은 보리스가 조선에 건축한 건물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다. 1908년부터 1936년까지 보리스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작품을 소개하는 작품집을 1937년 7월에 발간했는데, 일본에서 설계된 유일한 건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캠퍼스가 실려 있었다.¹¹⁾ 보리스는 1908년부터 1939년까지 한국에 총 17회 방문했다. 또한, 비록 일본에 사무실을 두었지만 보리스 사무소에는 한국인 건축가들도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근무하던 강윤(姜洵, 1899-1975)은 후에 한국의 근대건축에서 박길룡(朴吉龍, 1898-1943), 박동진(朴東鎭, 1899-1981) 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가 강윤은 공주에 있는 공주양명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였다. 이곳에서 양명학교 교장이면서 보리스와 가까

이 지냈던 프랭크 윌리엄(Frank E. C. William)의 추천으로 1920년 10월 보리스 건축사무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후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보리스건축사무소에서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1935년 준공한 이화여대 본관(Pfeiffer Hall), 음악당(Case Hall, 현 대학원관), 체육관(Thomas Gymnasium), 중강당(Emerson Hall) 뿐만 아니라 1936년 준공한 보육관(현 대학원 별관), 가사실습소(현 아령당), 영어실습소(현 영학관), 보육관(현 대학원 본관)은 강윤이 보리스 사무소에서 참여했던 건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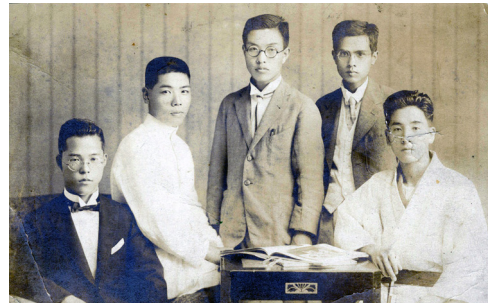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간사이공학전문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윤

[출처: 김정동, “강윤과 그의 건축 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2011]

3.2 파이프 홀(Pfeiffer Hall)의 건축적 특징

이화여자대학 건물 중 본관으로 사용되는 파이프 홀은 화강암건물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건물이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1,295.10평이다.¹²⁾ 건물의 이름은 당시 신촌으로 이화여대를 옮기는데 큰 금액을 기부한 파이프(Pfeiffer) 부부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한 것이다. 건축 설계는 보리스건축사무소에서 했으며, 건축 부감독은 한국인 건축가 강윤이 시공은 중국인 마종유가 담당했다. 강현은 보리스와 호흡을 맞춰 1933-35년 이화여대 파이프 홀(Pfeiffer Hall)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화여대 설계도의 작성자에 Y. Kang 혹은 Y. K 과 같이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¹³⁾

일제 강점기 건축공사의 경우 외국인 건축기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일부 선교사들이 직접 계획(설계)을 하는

8) 김정동의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져온 맨소래담을 팔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한다.
9) 김진일, 김승제, “건축가 W.M.Vories와 강윤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10, No. 6 (May, 1994), p.68.
10) 윤일주, “1910-1930년대 2인의 외국인건축가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29, No. 124 (June, 1985), pp.17-24.
11) 이정선, “일본의 건축선교사 보리스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p.113.

12)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p.32.
13) 김정동, “강윤과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 pp.212-213; (원저: 정창원, ‘보리스의 한국건축에서의 건축 활동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2005. 3.)

경우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까지도 조선인들이 직접 건축 공사 일을 맡아(도급) 하기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했다.¹⁴⁾ 따라서 한일합방 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시공을 했고, 한일합방 이후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화여대 파이프 홀은 1933년 6월 10일 본관 정초식을 했다. 파이프 홀은 1935년 완공이 되고, 이 건물 3층에 김애다(金愛多)¹⁵⁾를 기념하기 위한 기도실이 마련되었다.¹⁶⁾ 1950년 6.25 전쟁 후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면 출입구 및 양 옆 포치(porch) 뿐만 아니라 3층과 지붕 등이 크게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1953년 복구공사가 착공을 해서 현재의 원형으로 복구를 했다.



그림 3. 한국전쟁때 파괴된 파이프 홀 모습
[출처: 이화여대 아카이브]

파이퍼 홀은 3층의 튜터식 고딕(Tudor Style Gothic)양식으로 튜터식 건축은 장미전쟁 이후 튜터왕조 즉 헨리 7세부터 엘리자베스 1세까지의 시기에 유행하던 건축양식을 말하는 것이다.¹⁷⁾ 파이프 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신촌에 지어졌던 연세대학교의 근대 건축물들(스팀슨관, 아펜젤러관, 언더우드관)과 유사한 건축어휘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영국의 컨트리 하우스를 토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은 조금 더 고전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모습을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

1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과주: 기문당, 2007), 369.

15) 김애다 기도실은 이 학교를 1925년 졸업한 졸업생의 이름이다. 대학 졸업 때 결핵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다 1931년 생을 마친 김애다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기도실이다. 출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5), 33.

16) 윤후정,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94, p.223.

17)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p.61.

졌던 근대 학교 건축들의 고민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파이퍼 홀은 전장은 54.56m로 긴 장방형 건물로 좌우에 날개형식을 가진 H자형 평면으로 좌우대칭이다. 평면은 중복도를 두었으며 일반적으로 정면의 실들이 후면의 실들보다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좌우로 대칭이나 남북으로 대칭은 아니다. 주출입구 바로 들어서서 계단실이 있고, 이는 3층까지 이어진다. 또한 평면은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세기 초 근대건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평면의 형식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운데 중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 이동의 효율성(efficiency)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 평면이다.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근대에 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개념으로 당시 한국에 지어졌던 여러 근대 건축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1907년 지어진 <대한의원> 본관의 평면을 보면 건축가가 복도를 중심으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는 파이프 홀에서 보이는 평면과 유사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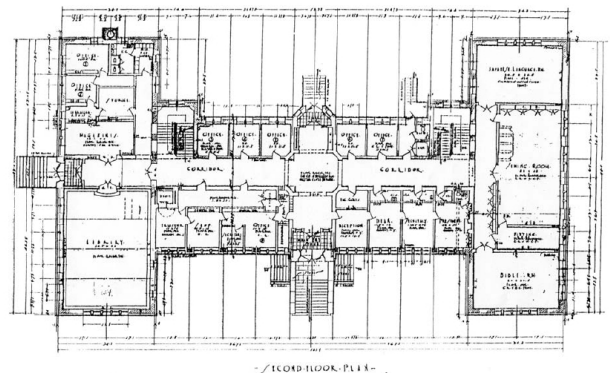


그림 4. 파이프 홀 1, 2층 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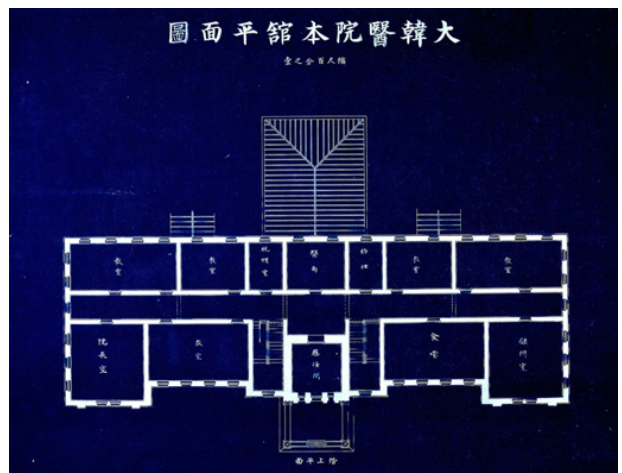


그림 5. 대한의원 본관 평면도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아카이브]

입면은 전체적으로 박공지붕형태로 수직적인 창문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 입면의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정면의 중앙 입구 포치와 좌우측 측면의 돌출된 모습을 통해 지루한 입면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사라졌지만 파이퍼 홀 초기 안에서 보면 좌, 우측의 다른 크기의 굴뚝이 계획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건축가가 입면의 변화를 통해 지루한 면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고 벽은 무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상부 구조는 목조트러스로서 이러한 방식은 20세기 초반 조선에 들어선 대부분의 서양건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조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세기 초반 근대건축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양식 중의 하나이고 전통적인 목조건축과는 구별되는 구조형식이다.

재료를 살펴보면 이 건물은 전형적인 서구식 석조건물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은 벽돌로 지어지거나 석재를 일부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정적인 느낌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석조건물은 20세기 이전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인 건축 재료였다. 하지만 20세기 초 점점 서양식 석조건물이 학교 및 궁궐 내의 여러 곳에 지어지면서 당시 조선인에게도 이러한 건물이 점점 익숙하고 친숙한 건물 형태로 다가갔다.



그림 6. 현재의 파이퍼 홀
[출처: 이화여대 아카이브]

파이퍼 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고딕양식의 뛰어난 조형성이 인정을 받아 2002년 5월 31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¹⁸⁾ 제14호로 지정이 되었다.

18)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물이나 유적 중 주로 일제강점기 이후 건축된 문화재 중에 보존과 활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적과 유물을 문화재청장

4. 결론

이화여자대학 파이퍼 홀은 보리스 건축사무소에 의해 설계가 되고 한국 건축가 강윤이 진행을 했으며 중국 기술자에 의해 지어졌다. 동양과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내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기술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보리스는 한국에 지은 건축물로 단순히 무조건적인 서양식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양의 건축 양식에 토대를 두었지만, 각 지역 고유의 지역성을 존중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건축가 강윤의 역할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파이퍼 홀은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물이다. 현재 ECC(Ewha Campus Complex)가 캠퍼스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초기 근대 건물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근대건축의 보존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사람들의 생활(삶)을 담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화여대의 캠퍼스 못지않게 20세기 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인 건물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기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파이퍼 홀은 새로운 것들에 대응하여 옛 것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건축의 보존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낭만적이고 은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Martice Heidegger)는 그의 책 『예술작품의 기원』에서 보존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예술작품의 보존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¹⁹⁾

참고문헌

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 김진일, 김승제, “건축가 W.M.Vories와 강윤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10, No. 6 (May, 1994): pp.59-68.
3. 김정동, “강윤과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 pp.197-214.
4.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5. 이정선, “일본의 건축선교사 보리스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 심의(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19) Martin Heidegger,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Basic Writings* (New York: Harper&Row, 1977), p.193.

6. 윤일주, “1910-1930년대 2인의 외인건축가에 대하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Vol. 29, No. 124 (June, 1985): pp.17-24.
7. 윤후정,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94.
8. 정창원, ‘보리스의 한국건축에서의 건축 활동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2005.
9. Martin Heidegger,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Basic Writings* (New York: Harper&Row, 1977).